

## < 제 3 장 >

**요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רַבִּי)는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칭이며, ‘선생’(διδάσκαλος, 디다스칼로스)은 교사,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말하였는데, 이는 그의 신앙적 고백이라기보다 표적을 본 후 자기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행하시던 일과 같은 범주로 이해하였고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교사로 인식하였으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써는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시대에서도 많은 이적들이 사역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표적의 의미보다 그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에 대한 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요 3:3**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ἀνωθεν γεννάω, 아노덴 겐나오)는 ‘다시’라는 의미를 넘어 ‘위로부터 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중생의 사건이다.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 세상의 지배 아래 있으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겨지게 된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처럼 거듭남은 인간의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며 생각과 의지와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영적 전환을 의미한다.

**요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인식의 차원을 말한다면, **5절**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 참여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거듭남은 단순한 이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속하게 되는 조건이다.

“물과 성령”은 외적 표징과 내적 변화를 함께 나타내는 표현으로 물은 정결과 회개를, 성령은 생명과 새 창조를 의미한다.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며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상태로 옮겨지는 사건이다.

거듭남의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 역시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구원의 조건이다.

###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옛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으로서 세상에 속하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 이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순종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세례가 공적 사역의 시작을 드러낸 사건이듯이 우리의 물세례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다.

“성령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이 입증되는 사건으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영적 현실을 의미한다.

‘성령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 삶의 열매로 그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거듭남은 단순한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순종과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중생의 본질이며 참된 믿음의 길이다.

**요 3:8** 바람( $\piνεῦμα$ )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piνεῦμα$ )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 $\piνεῦμα$  퓨누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비유로 들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신다.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지 인간이 완전히 알 수 없으나, 그 소리와 움직임의 흔적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또한 그 기원과 방식과 범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논리나 종교적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며, 동시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된 삶과 순종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적 변화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드러나는 영역을 동시에 가지며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된다.

**요 3:16-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그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으나, 아담의 죄로 그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는 상실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ὁὐτως)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단지 사랑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구속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멸망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며 영생은 단순히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며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창조 목적의 완성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드러낸다.

※ “믿음” (πιστεύω, 피스튜오. Believe)

- πιστός(피스토스. Trust)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곧 의지할 수 있는 확실성을 의미하며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신뢰의 성격을 가진다.
- πίστις(피스티스. Faith)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서 마음의 중심에서 형성되는 믿음을 뜻한다.
- πιστεύω(피스튜오. Believe)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에 따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뢰’(πίστις)를 기초로 자신을 맡기고 맡긴 대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적 순종을 포함하는 전인적 반응이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이어지며, 신뢰와 순종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나타나는 열매이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구원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 “믿는 자”(πιστευῶν ὁ, 피스튜은 호)

단회적 과거의 결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상태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지속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순간적 고백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지속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계시와 권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완성된다.

이 순종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권능을 믿고 따르는 삶이 보여 주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κρίνω, 크리노)은 단순히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다’, ‘판단하여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구원과 반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심판은 감정적인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른 구별이며,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결정적 선언이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심판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시작된 실재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써(요3:19) 스스로 빛을 거부하는 그 순간 이미 심판의 방향은 정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장차 받을 형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선택이며, 그 선택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최종적 심판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드러내시고 그 상태를 그대로 확정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빛을 거부하는 선택 자체가 이미 심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심판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는 사건으로서 지금의 선택이 영원의 결과로 이어진다.

###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됨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요10:26)라고 하시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10:27)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부르심과 응답이 구별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존재하며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며 믿음은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다.

그러므로 ‘택함’은 인간의 자량이 될 수 없고 또한 책임을 면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참된 택함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른다.

결국 마지막 심판은 단순한 선택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빛 가운데 거하였는가 어둠 가운데 머물렀는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믿음은 그 삶으로 증명된다.

### <두 종류의 사람>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3:15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되는 구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틀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혈통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 소속의 구분, 곧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속한 자의 구별이다.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승리하게 될 구속의 계열을 의미하며, ‘뱀의 후손’은 죄와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빛과 어둠, 구속과 대적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구속사적 역사이며,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약속의 계열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 요 3:19-20 누가 정죄를 받는 자인가?

정죄를 받는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며,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이다.

요한복음에서 정죄는 행위 이전에 관계의 문제이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권세와 자기 뜻을 앞세우며 그리스도의 계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 곧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정죄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결과로서 확정되는 상태이며, 이는 현재적 선택이 궁극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

### 1. 죄 (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본래 ‘표적을 빗나가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존재적 상태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죄로 강조된다.

구약에서의 ‘죄’(חַטָּאת 아온)는 왜곡과 비뚤어짐을 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죄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죄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를 본질로 한다.

### 2. 허물 (παράπτωμα, 파랍토우마)

‘파라프토마’는 ‘결로 떨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진리와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잘못을 가리킨다. 이는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잘못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죄가 목표를 빗나간 상태를 강조한다면 허물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탈과 넘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은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되지 않으며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탈을 포함한다.

### 3. 회개 (μετάνοια,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다’는 뜻으로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변화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뜻한다.

참된 회개는 인간의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용서’(ἄφῆμι 아피에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요 3:22-36**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이 선포.

**31-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근원이 하늘에 있으며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한다. 땅에 속한 자는 제한된 인식과 경험 안에서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받는 자”(λαμβάνω 람바노)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의 증언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붙드는 결단을 뜻한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입증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는 전인적 반응이며,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결국 믿지 않는 상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생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믿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진노 또한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는 영적 현실을 의미한다.

### <요한복음 3장>

거듭남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밝히며, 인간의 이해와 종교적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본질을 드러낸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필수적 조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타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며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며,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나타나는 삶만이 영생에 참여하게 됨을 선언한다. 이 장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 준다.